

##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四)

金午星

全體主義 哲學은 地方的 情熱을 基礎로 한다. 地方的 情熱을 나는 “情熱과 知性”이란 論文 가운데서 神話, 傳統, 本能을 土臺로 한 情熱이라고 말했다. 全體主義 哲學을 知性的 代身, 神話와 傳統과 種族本能을 들고 나온다. 獨逸의 나치스哲學은 피(血統)와 흙(土地)를 내세운다. 흙(地域), 이것은 神話 없이는 維持할 수 없는 理念이다. 神秘的인 種族의 傳說이 없이 흙(地域 즉 獨 □□□)의 概念은 서지지 않는다. 여기서 그들은 國家主義를 全體主義라 부른다. 이 이른바 全體主義란 全體는 世界 全體나 人類 全體가 아니라, 領土 全體를 이룸이다. 그러므로 全體란 國家 全體를 이룸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가 全體요 人間 今國民은 國家의 部分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흙은 피에 依하야 維持된다. 즉 國家는 血統에 依하야 營爲된다. 나치스가 猶太人을 排斥함은 이 血統에 對한 信仰에서이다. 피(血統)가 國家의 生命이다. 피는 한 개 有機體에서 보면 中樞神經을 通하야 循環한다. 國家는 한 개의 有機體다. 國家의 血脈도 中樞神經을 通해서만 循環될 것이다. 國家의 中樞神經은 指導者다. 그러므로 國家는 指導者 없이는 營爲되지 못한다. 國民의 意思是 國家의 中樞神經인 指導者를 通해서만 國家 全體에 傳達된다. 여기서 指導者, 國家의 理念이 成立된다. “國家 즉 指導者”, “히틀러 즉 獨逸”의 論理 아닌 論理가 主張된다. 이러한 言說이 知性を 無視하고서만, 그리고 神話와 傳統에의 信仰과 情緒 없이는 나와질 수 없음은 勿論이다.

여기다가 伊太利 파시즘의 哲學, 生은 오로지 行動이며, 未來 없는 現在가 全部이며, 現在는 衝動 즉 行動에 依해서 항상 새로워진다는 詹데레의 行動主義를 加味하면, 우리는 今日의 全體主義가 오로지 神話와 傳統과 種族本能에 基礎하고 잇음을 確實히 알 수 잇을 것이다.

우리는 以上の 實存哲學과 全體主義(國家主義) 哲學이 한 가지로 知性を 拒否한 非合理主義이면서도 相異한 象貌를 보여주고 잇음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實存哲學은 現代 知性人의 精神的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全體主義는 今日의 地方的인 現實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論者 가운데는 하이데켈이 一時 나치스에 加□하였다는 事實로 實存哲學을 나치스哲學이라고 斷定한 사람도 있었으나,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省察의 不足에서 와진 것이다. 實存哲學의 對象은 어디까지나 人間이며 自覺해가는 個人(知性人)임에 反하여, 全體主義 哲學의 對象은 國家이며 指導者를 中心한 國家인 것이다. 그리고 實存哲學은 人間이 有限性을 自覺하고 無限世界에 超越함에 있어 아무런 限界도 갖지 안혔다.

그러므로 實存哲學은 그것이 一般人으로부터 自覺에 依하여 自己만을 離脫해가는 個人을 目標로 한 點에서 一般性을 갖지는 못했으나, 그 超越하는 無限의 世界가 아무런 制限이 없는 點에서 普遍性, 世界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人間 一般의 世界觀으로서는 偏狹한 知性人의 人生觀일지언정 어느 地域에나 民族에 局限된 것이 아닌 點에서는 普遍性, 世界性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實存哲學은 非合理主義이면서도 반드시 反知性的인 것이 아니고, 어느 意味의 知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全體主義는 처음부터 世界나 人類와는 自己를 斷切시키는 國家만을 對象으로 하며, 國家의 特殊性만을 眼目으로 한다. 그러므로 全體主義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封鎖的이며, 鎖國主義的인 것이다. 한데 特殊的인 것은 論理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全體主義는 知性的인 것을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에 있어서의 知性的 驅逐은 全體主義에 依하여 完成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그것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哲學의 本來의 精神을 掠奪하는 所以에 지내지 못한 것이다.

知性的 過剩(合理主義)에 知性的 敗北를 나아 노함으며, 知性的 驅逐(非合理主義)가 哲學精神의 喪失을 招致하였다는 이 파라독스의 現象은 우리에게 무엇을 敎訓하고 있는가? 知性, 또는 哲學精神의 再建은 合理主義에 있어도 또는 非合理主義에 있어도 全然 不可能하다는 事實, 또는 이 合理性和 非合理性을 어떤 새로운 視角 밑에서 統一하지 안하면 안된다는 事實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合理性和 非合理性은 果然 統一될 性質의 것일까? 合理과 非合理은 對立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兩者 統一은 對立的 統一, 즉 디아리틱[디알렉틱]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발레리-와 같이 合理主義와 非合理主義에 同等의 市民權을 주어 가지고 그 뒤에 그 兩者의 比例를 探索하고 그 限界를 設定하는 것쯤으로 統一될 性質의 것이 아님은 위에서 이미 보아온 바이다.